

[2001 기도축제-‘하늘 문을 열어 주소서’]

주기도문

반태호 목사 / 페이지 수: 7

주기도문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지만 가장 많이 희생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그 보물을 우리가 보물답게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이름 붙이자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주신 것은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기도의 민족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민족이었습니다. 당시에 카디쉬라는 유명한 기도문과 18번 축복기도를 매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 속에서 살고 있는 그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경험하고 만났던 사람들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특징짓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히려 기도를 받으셔야 할 분이셨음에도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어쩌면 기도가 가장 필요 없는 분이셨음에도 예수님은 평생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기 직전에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과 진노의 문을 여시면 누구도 닫지 못합니다. 또 그 문을 닫으시면 아무도 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비밀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잘못하면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그들을 더욱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급기야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무섭게 지적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골방의 의미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다 잘못된 기도입니다.

두 번째,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은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내 열심으로 억지로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단순하지만 친밀합니다.

믿음의 기도, 신뢰의 기도, 확신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내용이나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먼저 구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기도라기보다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과 간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모두 다 이루어집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나머지 것들은 복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내 몸과 정신을 건강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육체적, 정신적 필요를 다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필요한 죄 용서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려면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기도 뿐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사단의 세력과 계속해서 싸우며 살아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3가지, 우리의 필요를 위한 것 3가지 총 6개의 청원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사실 크게 보면 4가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양식, 용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승리하는 것 4가지는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하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양식과 죄 용서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줄을 이렇게 잡아가 보십시오. 저는 기도를 시작할 때 항상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하기를 즐겨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이웃 속에 임하여 주십시오. 내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일용할 양식이 없는 이웃을 생각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이웃의 죄를 용서케 하시고 마지막으로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하며 기도하면 날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권력이 있고 돈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세상의 것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 구절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청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천국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궁극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창조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와

교만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곳

하나님께서서는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셔도 이들이 한 말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이때이니이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지만 이 땅에 실현시키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일이 여러분의 사명이 되고 비전이 되고 자녀들을 양육시키는 목적이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참 믿음이 좋으신 분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말입니다. 이런 결핍의 문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장 놀라운 비유입니다. 아들이 자신의 분깃을 챙겨 나가는 것은 더 이상 아버지 밑에 있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뜻대로 살기 위해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분깃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니다. 사실은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에 제한된 자원의 결핍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탕자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죽음의 결핍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즉 영생을 얻게 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회복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의 회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다. 다시 새로운 뿌리가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죽음 안에 있던 인생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얻어야 합니다.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잔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서는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그때에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받습니다. 바로 그것이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에 임하려면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신뢰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 삭개오는 이웃과의 회복을 결심합니다. 이것이 치유입니다. 사실은 삭개오는 이웃과 양속 관계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순간 그는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성길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웃과의 관계도 해결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

개하고 풀 것이 있으면 풀고, 불순종하던 것이 있으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우리의 삶을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단이 떠나가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풍성함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하는 자부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텐데 내가 순종하는 만큼 내가 의지하는 만큼 내 고집 내 방법을 버리고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것을 버립시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의지하는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마음으로 전폭적으로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길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곳에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그리스도의 축복이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정말 유치한 기도 같지 않습니까. 처음 주기도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삶을 중지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믿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시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가장 기본적인 삶은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일용할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기적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만나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백성이 애굽에서 시내 산까지 가는데 3개월이 걸리고 시내 산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38년이 걸렸습니다. 먹을 양식이 떨어지자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만나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거두어들일 때 절대로 하루치 이상 거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일용할 것보다 더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러자 만나를 썩어서 못 먹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재물을 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할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하나님의 공급해주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해주시기 위해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새는 파종을 하거나 가꾸고 곳간에 거두어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해놓은 것을 가져가는 수고를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구하게 하신 후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그것은 타락한 아담, 타락한 인생들의 특징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생의 특징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실히 일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일이 우상이 되는 것과 재물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신 주님은 더불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십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

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며 재물과 일을 우상화하는 일을 중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공급자임을 믿을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에에 대한 태도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결단이기때 우선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면서 물질에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입하시는 대로 먹이시는 대로 사는 삶이 가장 좋은 삶이며 재미있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하는 기도를 보면 또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심을 알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공동체로 부르심을 알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공동체로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하는 기도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셔서 함께 나누며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식량은 전 세계 인류를 먹일 만큼 주십니다. 그런데도 하루에 5만 명씩의 어린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을 나누지 않고 쌓아두기 때문입니다. 썩어 없어져도 나누지 않기에 한쪽에서는 그렇게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 다음의 태도는 감사하며 자족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과 모든 것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주시면 구제와 선교를 위해 쓰고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또한 모든 안전과 행복은 하나님 손에 달렸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취해야 할 태도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생업을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업을 중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주심, 풍성한 공급하심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우리가 가져야하는 태도는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또한 물질이 우상이 되지 않으려면 십일조 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구하라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삶에 주인 노릇하며 내 노력과 힘으로 생명과 행복을 유지하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뢰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를 해야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이 삽니다. 미워함으로 망가지는 것은 나입니다. 사람들은 죄 용서에 대한 심각한 기도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죄의 부담감이 내 영혼을 눌러서 내가 숨을 쉴 수도 없어 그 절규가 내 베갯잇을 적시고 내 침상을

뛰우는 그런 회개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상의 작은 문제 가지고는 울고불고 하면서 죄 문제에 대한 철저한 통회자복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죄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의 문제는 죄에 대한 의식이 점점 희박해져 간다는데 있습니다.

회개를 해야 우리 양심이 정상적으로 가동을 합니다. 회개가 없는 시대는 저주받은 시대입니다. 심판의 시대입니다. 회개가 없는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발 앞에 놓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홍수가 임할 때 하나님은 1백 20년 동안 기회를 주고 짐승들을 태우고 나서도 일주일의 기다렸습시다. 그런데도 반응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만들고 죄가 장성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청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은 보기만 해도 가슴이 아프고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죄의 심각성, 죄에 대한 심판, 저주, 그것들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합니다. 죄 용서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용서 못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결단에 의해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이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잘 해도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것은 사랑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주기도문은 평생 우리가 외우고 기도해야 될 이유 중의 하나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양식 하나를 구하는 그 겸손함,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삶,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다가오는 결단의 순간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간구하는 능력, 주님 죄 사함을 믿고 날마다 우리의 죄 용서를 구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읽다 보면 마치 조건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줘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요서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나도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용서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가족으로 다시 받아들이는 겁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다시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통해서 확장됩니다.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되고, 하나님의 용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용서를 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일에 내가 훼방 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청원이면서 동시에 순종의 결단입니다. '내 죄를 용서 하십시오'하는 말은 용서하면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내게 양식을 주옵소서'하는 말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이며 서원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의 악은 사단이라는 뜻입니다. 시험은 사단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악에서 구원을 받아야 시험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로부터 건짐을 받고 보호를 받아야 우리가 시험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사단은 강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 강한 자를 결박하고 사단에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소서’를 마지막으로 끝맺으면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첫 기도와 마지막 기도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우리 삶에 임하게 되면,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 출처 : 온누리신문